

Daniel: 33 – Sermon Notes

Title: “Daniel's prayer (Part 1)”

Scripture: Daniel 9:1-8

Date preached: February 2nd 2025

Scripture: Daniel 9:1-8

1 In the first year of Darius the son of Ahasuerus, of the lineage of the Medes, who was made king over the realm of the Chaldeans— **2** in the first year of his reign I, Daniel, understood by the books the number of the years *specified* by the word of the LORD through Jeremiah the prophet, that He would accomplish seventy years in the desolations of Jerusalem.

3 Then I set my face toward the Lord God to make request by prayer and supplications, with fasting, sackcloth, and ashes. **4** And I prayed to the LORD my God, and made confession, and said, “O Lord, great and awesome God, who keeps His covenant and mercy with those who love Him, and with those who keep His commandments, **5** we have sinned and committed iniquity, we have done wickedly and rebelled, even by departing from Your precepts and Your judgments. **6** Neither have we heeded Your servants the prophets, who spoke in Your name to our kings and our princes, to our fathers and all the people of the land. **7** O Lord, righteousness *belongs* to You, but to us shame of face, as *it is* this day—to the men of Judah, to the inhabitants of Jerusalem and all Israel, those near and those far off in all the countries to which You have driven them, because of the unfaithfulness which they have committed against You.

8 “O Lord, to us *belongs* shame of face, to our kings, our princes, and our fathers, because we have sinned against You.

1 □□□□□□ □□□ □□ □□ □□□□ □□□□□ □□□ □□□ 2 나 다니엘은 예언자 예레미야의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이 70 년 동안 황폐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3 그래서 나는 굵은 삼베 옷을 입고 잣더미에 앉아 금식하며 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4** 그때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나와 내 백성의 죄를 고백하며 이렇게 기도하였다. “여호와여 주는 크시고 두려워할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항상 주의 약속을 지키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5** 그러나 우리는 범죄하였습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고 못된 짓을 하였으며 주의 명령을 거역하였고 주께서 보여 주신 바른 길을 떠났습니다. **6** 우리는 또 주의 종 예언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관리들과 우리 조상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한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7** 여호와여 주는 항상 의로우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오늘날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사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주께 산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8** 이와 같이 우리가 다 주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의 왕들과 관리들과 우리 조상들까지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Review

Today we will begin chapter number 9. However, before we do let us take a few moments to review some of the key things we looked at last time as we concluded chapter 8.

Chapter number 8 of Daniel tells us about the second vision he experienced. This God sent vision occurred in the year 551 BC.

The vision found Daniel taking in a scene in the vicinity of the ancient city of Shushan. As he is standing by the Ulai River he sees a ram. This two horned ram is identified by the angel Gabriel as symbolising the empire of the Medes and Persians. This powerful creature dominates all the other animals it encounters, but only for a time. We know from history that the Medes and Persians conquered a large swathe of land and held power for 200 years.

The ram's dominance is ended by the appearance from the west of a male goat. Again we later learn the identity of the goat. It represents the Greek empire led initially by the charismatic genius who was Alexander the Great. He is symbolised by the single horn on the goat's head. Upon its arrival at the river Ulai the goat ferociously attacks the ram breaking its horns and trampling it into the ground. This symbolises how the Medo-Persian Empire was conquered by the Greeks.

As we know from history the Greeks rapidly conquered a large geographic area and may well have gone on to greater things if tragedy had not struck. The single horn of the Greek empire is broken and four smaller, less powerful horns emerge. This very accurately predicts what happened to the Greek Empire. Upon the early death of Alexander the Empire was split into four parts each of which was ruled by a king. These four kings were known as the *diadochi* (the successors). They would usher in a period of tumultuous infighting as they wrestled for control of territory.

One part, and by some distance the largest part of the formerly united empire was the Seleucid Empire. Originally founded by Seleucus, or to give him his full title Seleucus I Nicator meaning Seleucus the Victorious. He ruled over a vast empire. At its greatest extent it stretched from Thrace in Europe all the way to the border of India. It also encompassed what is today Syria and Israel. It is from this dynasty that a wicked king would emerge. He is symbolised in the vision as being the small horn that emerges from one of the four. I am referring to none other than Antiochus Epiphanies. He came to power in 175 BC. History knows him as a cunning and cruel ruler who had a particular hatred for the Jews. He is also known for his monstrous ego which led him to refer to himself as "epiphanies" meaning, "god manifest."

As a Greek he sought to impose his own culture (Hellenism) upon all those over whom he ruled. He would not tolerate the Jews and their religion and sought to persecute them out of existence. His most infamous action against the Jews took place in the year 168 BC. Antiochus ordered his troops to capture Jerusalem. He then went into the temple and sacrificed a pig on the altar. This act of abomination left the temple desecrated. The Jewish practice of twice daily sacrifices had to be suspended. Daniel later learns that the horror of this man's tyranny, and the suspension of sacrifices will continue for 2,300 evenings and mornings. This time frame has been interpreted in different ways. It is my belief that it relates to the period of time from when Antiochus began his persecution until the time the temple was finally cleansed (165-168 BC).

Daniel is told that Antiochus will be allowed to prosper and thrive only for this limited time period. God is using him to accomplish His divine will. In this case to bring the Jewish people to the reality that they had neglected and turned from Him. In order to see the natural order return they needed to repent and turn back to Him. Despite the horror that would befall the Jews God always remained in absolute control. He would eventually call time on this antichrist and bring about his downfall. The vision ends with Daniel being told to accurately record all he has been told and then seal it up.

It is important for us to recognise that in Daniel's vision we are receiving a dual prophecy that is to be fulfilled. The first antichrist to emerge will be Antiochus Epiphanies. However we are to also look beyond him to a second Antichrist. He will come to the fore during the end time tribulation.

Not surprisingly Daniel is left deeply troubled by this whole experience. However after a few days of sickness Daniel gets up and continues working for the king.

Today we are beginning chapter number nine. This chapter will present us with the third vision that Daniel experienced. Although it is the vision that garners most of the attention it only accounts for a small part of the chapter (verses 24-27). The majority of the chapter is taken up with Daniel's prayer. And what a prayer it is, one of the most heartfelt and stirring prayers recorded in the Bible. Pastor John MacArthur describes it as, "The single greatest model of prayer in all the Old Testament. It provides us with the perfect example of how to pray." Today we will look at the first part of the prayer.

오늘은 9 장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번에 8 장을 마무리하면서 살펴본 핵심적인 내용을 잠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 장은 그가 경험한 두 번째 환상에 대해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이 환상은 기원전 551 년에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은 고대 도시인 수산 근처에서 환상을 봅니다. 그는 오래 강가에 서서 숫양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가브리엘 천사 두 쌍을 가진 이 숫양은 메대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강력한 짐승은 맞닥뜨리는 모든 동물들을 정복하지만, 단지 잠시일 뿐입니다. 역사상 메대페르시아는 광대한 땅을 정복하고 200 년 동안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서쪽에서 나타난 숫염소가 숫양의 지배를 끝냅니다. 나중에 숫염소의 정체를 알게 되는데, 카리스마 넘치는 천재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숫염소의 머리에 있는 하나의 뿔이 그를 상징합니다. 오래 강에 도착하자 숫염소는 숫양을 맹렬히 공격하여 뿔을 부러뜨리고 땅에 짓밟습니다. 이것은 그리스가 메대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한 것을 상징합니다.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리스인들은 빠르게 넓은 지역을 정복했고 알렉산더가 일찍 죽지 않았다면 더 큰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스 제국의 유일한 뿔이 부러지고 네 개의 작고 약한 뿔이 나타납니다. 이는 그리스 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매우 정확하게 예측합니다. 알렉산더가 일찍 죽자 제국은 네 부분으로 나뉘었고 각 부분은 네 왕이 통치했습니다. 이 네 왕은 *diadochi*(후계자)로 알려졌습니다. 그들은 영토를 장악하기 위해 싸우면서 격동적인 내전의 시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개로 나뉘어진 제국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은 셀레우코스 제국이었습니다. 원래 셀레우코스가 세웠는데 그의 정식 명칭은 승자 셀레우코스 Seleucus the Victorious 를 뜻하는 셀레우코스 1 세 니카토르 Seleucus I Nicator 입니다. 그는 제국의 광대한 영역을 통치했습니다. 전성기에는 유럽의 트라키아에서 인도 국경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날의 시리아와 아시리아를 포함했습니다. 바로 이 왕조에서 나중에 사막의 왕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다니엘의 환상에서 네 개의 뿔 중 하나에서 나오는 작은 뿔로 상징됩니다. 이 왕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니아스입니다. 그는 기원전 175 년에 집권했으며, 특별히 유대인을 증오했고 교활하고 잔인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대단히 거만하여 자신을 "현신 god manifest "을 의미하는 "에피파니아스 epiphanies"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인이었던 그는 통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문화(헬레니즘)를 강요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과 그들의 종교를 용납하지 않았고 그들을 없애려고 박해했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그의 가장 악명 높은 행동은 기원전 168 년에 일어났습니다. 안티오쿠스는 그의 군대에게 예루살렘을 점령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 다음 성전에 들어가 제단에 돼지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 혐오스러운 행위로 인해 성전은 더럽혀졌습니다. 하루에 두 번씩 제사를 드리는 유대인의 관습이 중단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폭정의 공포와 제사 중단이 2,300 일 저녁과 아침 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기간은 여러 방식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안티오쿠스가 박해를 시작한 때부터 성전이 마침내 정화될 때까지(기원전 165-168 년)의 기간과 관련이 있다고 믿습니다.

다니엘은 안티오쿠스가 이 제한된 기간 동안만 번영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자를 사용하여 자신의 신성한 뜻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그분에게서 돌아선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상적인 질서가 원상 복구되는 것을 보려면 회개하고 그분께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딱칠 공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절대적인 통제력을 유지하십니다. 그분은 결국 이 적그리스도의 시간을 끝내고 그의 몰락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 환상은 다니엘에게 그가 들은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한 다음 봉안하라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은 다니엘의 환상이 미래에 성취될 이중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등장할 적그리스도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니아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넘어서 두 번째 적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는 마

그러므로 9 장의 다니엘은 기원전 539 년 또는 538 년 어느 날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계속해 보겠습니다.

2 in the first year of his reign I, Daniel, understood by the books the number of the years specified by the word of the LORD through Jeremiah the prophet, that He would accomplish seventy years in the desolations of Jerusalem.

The British Prime Minister Winston Churchill was attending a press conference in Cairo in 1943. He was asked by a journalist what he thought would happen in the future. His canny answer typifies the man's razor sharp wit, he answered, "I always avoid prophesying beforehand, because it is a much better policy to prophesy after the event has already taken place."

How true. After the event you can guarantee a 100% success record. I think Donald Trump will win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I think the South Korean president will make a serious political blunder which plunges the nation into political turmoil. See I'm a prophetic genius.

But of course this is not prophecy. Prophecy, properly defined, is the ability to accurately predict how the future will unfold. It is not to comment on what has already transpired. As human beings we are fixed on a linear time line. Events unfold as we experience them.

This means that whilst it is possible at times to predict, or at least make well-informed guesses about what may happen in the future we can never be absolutely sure of things. God however is not limited or restricted as we are. Unlike us He exists outside of time which means He can see the beginning from the end.

This means that when He reveals things to His prophets we can be sure that they will be fulfilled. God had warned His people on many occasions what would happen if they turned from Him and began to worship false idols. It would result in their punishment, and more drastically in the collapse and loss of their nation. The Old Testament is full of these repeated warnings. That God gave the people these frequent reminders demonstrates just how much God loved His people and desired that they stay focused upon Him. However a cursory reading of the Old Testament shows us that this was not what transpired. The people did not listen to the prophets, and as a result God took their nation away and they were exiled to Babylon.

As we know from personal experience catastrophe and mishap often lead to a change of attitude. Sadly we often only make radical change after something bad has happened. For example what happens to people when they have a stroke or other medical emergency? It very often provokes them into becoming much more aware of their mortality and adopting a healthier lifestyle. They stop smoking, alter their diet or begin to exercise more. For the Jews living in exile in Babylon the shock of what had happened to them provoked them to take God's Word, and in particular prophecy more seriously.

2 나 다니엘은 예언자 예레미야의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이 70 년 동안 황폐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영국의 총리 윈스턴 처칠이 1943 년 카이로에서 기자 회견에 참석했습니다. 한 기자가 그에게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냐고 물었습니다. 처칠의 재치 있는 대답은 그의 날카로운 재치를 잘 보여주는데, 그는 "저는 항상 미리 예언하는 것을 피합니다. □□□□□ □□ □□□□ □□ □□ □□ □□□□ □□□□□."라고 대답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 □□□ 100% 정확할 수 있습니다. 나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 거라고 생각해 나는 한국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심각한 실수를 저질러서 국가가 정치적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해 봐, 나는 천재적인 예언가야!

하지만 이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을 올바르게 정의하면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능력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직선적인 시간대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 처칠 때에 우리는 경험하면서 알게 됩니다.

10 Moreover I will take from them the voice of mirth and the voice of gladness, the voice of the bridegroom and the voice of the bride, the sound of the millstones and the light of the lamp. 11 And this whole land shall be a desolation and an astonishment, and these nations shall serve the king of Babylon seventy years.

12 'Then it will come to pass, when seventy years are completed, that I will punish the king of Babylon and that nation, the land of the Chaldeans, for their iniquity,' says the Lord; 'and I will make it a perpetual desolation. 13 So I will bring on that land all My words which I have pronounced against it, all that is written in this book, which Jeremiah has prophesied concerning all the nations. 14 (For many nations and great kings shall be served by them also; and I will repay them according to their deeds and according to the works of their own hands.)'" (Jeremiah 25:10-13)

10.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11.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칠십 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12. 여호와의 말씀이 나라 칠십 년이 마칠 때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밀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13.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산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10 For thus says the Lord: After seventy years are completed at Babylon, I will visit you and perform My good word toward you, and cause you to return to this place. (Jeremiah 29:10)

10.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칠십 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상추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Allow me to give you a little context. Jeremiah had prophesied that because the people had turned from God that they would be punished by a period of exile.

God's people would be taken away to Babylon for a period of 70 years. The land they left behind including the city of Jerusalem would fall into ruin (desolation). However the prophecy also went on to say that after 70 years God would punish the Babylonians and bring them to ruin. This would be the sign to indicate that it was now time for His people to return to their land. Daniel realised following the fall of the Babylonian empire that maybe this was the time that Jeremiah had spoken of. He was also able to do some simple mathematics. He had left Jerusalem aged around 15, now he was let's say 80, so it's closing in on that prophesied period of 70 years. So Daniel is clearly thinking (hoping) that it was now the time for the long-awaited return.

Before we move on I want to make a few observations. The first concerns how we are to understand the period of seventy years. I will speak in more detail on this in two weeks time. However often when it comes to understanding the numbers recorded in Daniel interpreters treat them as being symbolic. They are not to be read or taken as being literal. What's interesting though is that they don't think the same about the seventy years given by Jeremiah. These are always taken as literal years. We know this because history tells us that the Babylonian captivity lasted for 70 years! This was how Daniel understood them and how we should understand them.

The second observation concerns Daniel's approach to Jeremiah's prophecy. I hope you noted what Daniel wrote as regards the words he was reading. Daniel realised that this was **the word of the LORD through Jeremiah**. He was not reading Jeremiah's thoughts, intuitions or guesses. This was what God had revealed to Jeremiah. This means it was true and could be trusted. Today I'm afraid there are too many who treat God's Word as if it's just a guide, suggestion or recommendation book. Because of this we can pick and choose the things we like, and disregard the bits we dislike. Do you

set his face toward the Lord.” What does this convey to you? Does it convey a lacklustre, or half-hearted attitude towards prayer? Far from it. This expression implies serious determination. Daniel desperately wanted to reach God through prayer and nothing would deter him from achieving this objective. The question we might ask here is why did Daniel pray. What motivated his prayer?

Did Daniel pray because he doubted that God would fulfil the prophecy and allow His people to return? Hardly, after all Daniel had experienced in Babylon his faith in God was rock solid. He fully believed that God could and would accomplish His will. So why did Daniel pray?

Daniel prays to plead for God's mercy. He seeks to implore God to act at the earliest possible moment. You see there are several dates that could be used to determine the 70 year time period. There were three separate waves of captivity. In 605 BC Jerusalem was attacked and Daniel and other captives were taken to Babylon. In 597 BC Jerusalem was again attacked and treasures were taken from the temple. And in 587 BC Jerusalem fell completely and the nation was exiled.

So obviously Daniel wants God to begin the 70 years count from 605 and not 587. His prayer is to ask God to act as soon as possible for this undeserving and sinful group of people. They certainly had not earned God's salvation so Daniel humbles himself in prayer before the Lord.

He follows the practices that were common for Jews during a season of deep grieving or mourning. First we are told he fasted. He went without food so that he could be completely focused upon God. Fasting also demonstrates in a practical way exactly how dependent we are upon God. When we fast we put ourselves entirely in God's hands.

We also read that he put on sackcloth. This was traditionally a sign of humiliation and mourning. Sackcloth was a coarse, rough material usually made of black goat's hair. It was most often used to make sacks or bags. It was as you can imagine it was very uncomfortable to wear. This was the point, it was worn as an act of debasement or humility. The same applied to the ashes or dust that one sprinkled over one's head. It served to remind the person that they came from the dust and are in essence nothing. Both sackcloth and ashes are intended as an outward sign of one's inward condition. They are adopted to show that one is truly sorry and is seeking genuine repentance.

3 그래서 나는 굵은 □ □ 옷을 입고 잣대에 앉아 금식하며 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예리미아의 예언을 아해한 다니엘은 무엇을 했나요? 그는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가 사용한 표현을 주의 깊게 살펴 보세요. " 그는 얼굴을 주님께 향했다 He set his face toward the Lord God " 고 말합니다. 어떤 느낌을 받으니까? 그의 기도가 무기력하거나 간성으로 드리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 진정한 결의를 의미합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다가가기를 간절히 원했고 아무것도 그의 이런 목표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왜 기도했는지 궁금합니다. 그가 기도한 동기가 무엇이였을까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예언을 성취하고 그의 백성의 구원을 허락하실 지 의심스러워서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바빌론에서 하나님에 대한 배우처럼 굳건한 믿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능히 이루실 것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왜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능한 한 빨리 역사하시기를 간청합니다. 70 년 기간을 결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날짜가 여러 개 있습니다. 세 번에 걸쳐 유배 행렬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605 년에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고 다니엘을 포함하여 포로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기원전 597 년에 예루살렘이 다시 공격을 받고 상전 보물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87 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587 년이 아니라 605 년부터 70 년을 계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무가치하고 죄 많은 백성들을 위해 가능한 한 빨리 행동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합당치 못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깊은 슬픔이나 애痛的 시기에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행했던 관습을 따릅니다. 먼저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 금식했습니다. 금식은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함을 실제적으로 보여줍니다. 금식할 때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는 또한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굴욕과 애痛的의 표시였습니다. 베옷은 보통 검은 염소 털로 만든 조잡하고 거친 소재였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자루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거칠어서 입기에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했고, 굴욕이나 겸손의 행위로 입었습니다. 머리에 뿌리는 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먼지에서 나왔고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베옷과 재는 모두 자신의 내면적 상태를 외부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진심으로 사귀하고 진심으로 회개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4 And I prayed to the LORD my God, and made confession, and said, “O Lord, great and awesome God, who keeps His covenant and mercy with those who love Him, and with those who keep His commandments,

Daniel's urgent prayer begins with confession. We often speak of the word confession but I wonder if we truly understand what it means. In first John 1:9 we read.

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 and just to forgive us *our* sins and to cleanse us from all unrighteousness.

The Greek word used here for confess is the word *homologeō*. It means, “to agree with, or to say the same thing as another.” So if someone says that they think "kimchi jjigae" is a delicious Korean dish and you agree with their words you can say you are in *homologeō*.

When we consider the word from a biblical stance it means to say the same thing as God when it comes to the subject of sin. It is to agree with God that sin is a terrible thing.

It's not, as we so often do try to minimise or excuse our sin. It is to agree with God's standards that our thoughts, words and deeds are sinful. Yes Lord, I am a sinner and I desire to turn from my sin and seek after you.

Daniel in this verse is not literally admitting to all the sins carried out by God's people. As far as we know he had been loyal and faithful to God. We have no reason to believe that Daniel was guilty of the numerous serious sins of the people of Israel. However we must never forget that Daniel, like all of us was a sinner. So what Daniel is doing here is identifying himself with the sinful people of Israel and begging for God's mercy.

Genuine confession also includes proclaiming who God is. We not only confess our sins before God, but we also confess, or profess the truth about who God is.

Daniel begins his prayer by proclaiming realities or truths about God. God is great and awesome. How true. I hope you are not in any doubt about God's greatness. If you are I encourage you to take a look up at the starry night sky. Or probe the intricacies of the human body. You cannot contemplate these things without being awestruck and amazed at our creator God. He then goes on to acknowledge that God keeps His promises or agreements. If He makes a covenant He keeps it. God's people may be fickle and disloyal, but not God. He does not neglect or forget about those who love and obey Him. God has not forgotten His chosen people.

I am reading a book at the moment titled, “God's promises of the land to Israel” (Billye Brim). It lists all the verses in the Old Testament that speak of God's promises to His chosen people about the land of Israel. It's seventy pages long. It contains a lot of promises. I'm sure none of you are in any doubt. But in case you are let me remind you. God is NOT a covenant breaker. He always fulfils His promises and agreements.

4 그때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나와 내 백성의 죄를 고백하며 이렇게 기도하였다 “여호와여 주는 □□□ 두려워 할 하나님입니다. 주께서는 주를 □□□□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항상 주의 약속을 지키시며 한결같은 □□□□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의 간직한 기도는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고백이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하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진정 이해하는지 궁금합니다. 요한일서 1 장 9 절에서 기록하길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면하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자백, 고백에 사용된 그리스어 단어는 *homologeō* 입니다. 그것은 "동의하다, 또는 다른 사람과 같은 말을 하다"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김치찌개"가 맛있는 한국 음식이라고 말하고 당신이 그 말에 동의한다면 당신은 *homologeō*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고백이란 단어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는 끔찍한 것이라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그러듯이 죄가 별거 아니라고 여기거나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백은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이 죄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네, 주님, 저는 죄인이고 제 죄에서 돌아켜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다니엘이 자기의 죄로 문자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한 다니엘은 하나님께 충성했고 신실했습니다. 우리는 아시리아 백성들이 저지른 수많은 심각한 죄를 다니엘도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도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다니엘은 자신을 죄 많은 아시리아 백성과 동일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고백에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선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 또한 고백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선포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고 두려워해야 할 분입니다. 참으로 웅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심한다면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올려보세요. 아니면 인체의 복잡한 구조를 탐구해 보세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창조주 하나님께 경외감과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계속하여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인정합니다. 그분은 언약을 맺으면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변덕스럽고 불충실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소홀히 여기거나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택하신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저는 지금 "아시리아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God's promises of the land to Israel"이라는 제목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빌리 브림). 그 책은 아시리아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하는 구약성경의 모든 구절들을 열거합니다. 70 페이지 분량입니다. 많은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중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의심한다면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어기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항상 자신의 약속과 언약을 이루십니다.

5 we have sinned and committed iniquity, we have done wickedly and rebelled, even by departing from Your precepts and Your judgments.

Please note how Daniel words his prayer. He does not say, "they" have sinned and committed iniquity. He begins by including himself among those who have done wrong. He says, "**we have sinned and committed iniquity**" Now you may wonder what the difference is between sin and iniquity. Often these two words are used interchangeably throughout scripture. But there is a subtle difference. Allow me to explain.

Let's deal first with sin. Simply put sin means "to miss the mark." I'm sure you've heard that expression before, and been given the image of an archer shooting at a target. Sin can refer to doing something against God or against a person (Exodus 10:16), doing the opposite of what is right (Galatians 5:17), doing something that will have negative results (Proverbs 24:33-34), and failing to do something you know is right (James 4:17).

In the Old Testament, God even instituted sacrifices for unintentional sins (Numbers 15:27). Sin then is the general term for anything that “falls short of the glory of God” (Romans 3:23). Let us turn next to consider iniquity.

Iniquity is more deeply rooted. The Hebrew word used most often for “iniquity” means “guilt worthy of punishment.” Iniquity simply put is sin at its worst. It describes twisting or distorting what was once beautiful and good. Iniquity often refers to making a premeditated choice to carry on sinning. It frequently describe an escalation of sin over time. We might think here for example of David's continuing sin with Bathsheba which eventually led to the deception and murder of Uriah. This would be an example of iniquity. A carrying on of sin without repentance.

Now throughout our journey through the Book of Daniel we have seen on many occasions the exemplary life of Daniel. He was a man of strong courage and conviction. Personally he had been faithful to God. Naturally he was not perfect and fell into sin as we all do. However, since he was an Israelite, he could not separate himself from God's judgement of His people. God had promised to bless them if they were obedient and curse them if they were disobedient.

God had remained loyal, true and faithful to His covenant people. Unfortunately they had not remained true and faithful to Him. They had acted in wicked ways and rebelled. That is of course one of the definitions of sin. Sin is a rejection of, and a rebellion against what God and what He wants. The people of Israel had turned from the worship of the one true God, and turned instead to idols. In doing so they had brought defilement upon the land. They had also ignored, and gone away from the laws that God had given to them. It was no wonder that God was rightfully punishing them.

5 그러나 우리는 범죄하였습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고 못된 짓을 하였으며 주의 명령을 거역하였고 주께서 보여 주신 바른 길을 따랐습니다.

다니엘이 선택한 단어를 주목하세요. 그는 "그들 they"이 죄를 범하고 불의를 행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죄인들 가운데 자신을 포함합니다. 그는 "**우리가 죄를 지었고 불의를 행하였습니다 we have sinned and committed iniquity**" 라고 말합니다. 죄 sin 와 불의 iniquity 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하죠. 이 두 단어는 성경에서 종종 비슷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 sin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죄는 "목표를 빗나가는 것 to miss the mark"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이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고, 표적을 향해 활을 쏘는 궁수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또는 사람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것(출애굽기 10:16), 옳은 것과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갈라디아서 5:17),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일을 하는 것(잠언 24:33-34), 옳은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고보서 4:17)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의도치 않게 지은 죄를 위한 제사도 제정하셨습니다(민수기 15:27).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것"(로마서 3:23)을 일반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불의 iniquity 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의 iniquity 는 뿌리가 더 깊습니다. "불의"에 가장 자주 사용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벌을 받을 만한 죄 guilt worthy of punishment" 를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불의는 최악의 죄입니다. 그것은 한때 아름답고 선택했던 것을 왜곡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불의는 죄를 짓기 위해 의도적으로 미리 계획하여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종종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죄가 커지는 것을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밋새바와 계속 죄를 짓고 결국 우리를 속이고 살해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의의 예입니다. 회개 없이 죄를 계속 짓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살펴보는 동안 우리는 다니엘의 모범적인 삶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그는 대단한 용기와 확신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는 하나님께 충신했습니다. 물론 그는 완벽하지 않았고 우리 모두가 그러듯이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스라엘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에서 자신을 떼어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순종하면 축복하고 불순종하면 저주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은 사회의 한 계층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상호 연관성을 강조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은 것은 집단적인 죄였습니다. 국가의 왕과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을 포함했습니다. 그들 모두 똑같이 범죄했습니다.

7 O Lord, righteousness belongs to You, but to us shame of face, as it is this day—to the men of Judah, to the inhabitants of Jerusalem and all Israel, those near and those far off in all the countries to which You have driven them, because of the unfaithfulness which they have committed against You.

God is always just and righteous. In any and every situation He can only ever do what is right and good. That is His divine nature. Human beings however are very different. To our great shame we frequently do what is wrong and evil. Even when our conscience tells us that we are doing is wrong be ignore it. We allow temptation to take hold and morph into sin.

The people of Israel were no exception to this rule. To their great shame they turned from God, they were unfaithful in their commitment to Him, and He was fully justified in punishing them. This punishment involved driving them away from the land He had given them. Daniel affirms this fact. Please note that he does not question God on this issue, or query whether God did the right thing. He at no point ever doubts whether what God allowed to happen was right and fair.

So many people today come before God with accusations. Here are some of the common accusations thrown at God. "If you are so good why did you allow this to happen?" Or, "Why didn't you intervene at this point?" or how about this one, "If you love me why did you let me suffer?"

At times we may all have these kinds of questions. There are many things I could say as to why suffering and evil exist in our world. The things I, or other pastors say may not fully satisfy you. You may still be left with questions. You may continue to believe that God is at times unfair. Let me assure you that He is not. God knows best, and is always right and just.

7 여호와여 주는 항상 의로우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오늘날 수치를 당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자들과 여러 나라에 흩어져 모든 이스라엘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주께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정의롭고 의로우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은 항상 옳고 선한 일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신성한 본성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매우 다릅니다. 매우 부끄럽게도 우리는 자주 못되고 악한 일을 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행위가 잘못이라고 경고해도 무시합니다. 우리는 유혹이 자리 잡고 죄로 변하도록 허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수치스럽게도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고, 그분께 불충신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벌하는 것은 온전히 정당했습니다. 그분이 그들에게 주신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 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는 이에 대해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께서 과연 옳았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일이 옳고 공정한지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비난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선하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나요?" 또는 "왜 이 시점에서 개입하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저를 사랑한다면 왜 제가 고통 받게 내버려 두셨나요?" 라는 질문은 어떨까요?

때때로 우리 모두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 고통과 악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 할 말이 많습니다. 저나 다른 목사들의 말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질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불공평하다고 계속 고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시고, 언제나 옳고 정의로우십니다.

8 "O Lord, to us belongs shame of face, to our kings, our princes, and our fathers, because we have sinned against You.

Once again Daniel emphasises the collective guilt of the Jewish people. Personally, he may have

법은 그분의 거룩한 본성을 반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짓는 것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다음 주에 다니엘의 기도의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Lessons to learn

I have two lessons drawn from today's passage.

오늘의 본문에서 두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1 Read the Word

It's an obvious point I agree, but still one worth making. Daniel would not have known about the soon to be fulfilled prophecy had he not been a reader of the Word. Daniel knew about the prophecy because he was a devoted reader of God's revelation. But, I think it's fair to say that he was a not just a casual reader. He didn't just dip in occasionally and read a verse here or there. I think that he was someone who pored over the scriptures. I believe like many Jews of his day he had large sections committed to memory.

I wonder how our devotion to bible reading, study and memorisation compares with Daniel. Are we as committed and devoted as he was? I hope so, but I rather doubt it. Sadly I think many followers of Christ today are a little apathetic about bible reading and study. There are serious consequences attached to this apathy. How can we ever hope to have God's truth committed to our hearts and minds unless we read, study and devote ourselves to the Word? How can we robustly present and defend a faith we do not know well ourselves? How can we be properly prepared to live now, and in the future in a God pleasing way without a commitment to the bible. The bible is God's manual for good and holy living. We simply cannot live well without it. May we all desire to do better in this area.

1.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너무나 지명한 사실이지만, 여전히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말씀을 알지 않았다면 곧 성취될 예언에 대해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헌신적으로 읽었기 때문에 예언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간성으로 알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가끔씩 잠깐 이 구절 저 구절을 알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아주 꼼꼼히 읽었을 것입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처럼 그는 많은 부분을 암기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 읽기, 공부, 암기에 대한 헌신이 다니엘과 비교해서 어떤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것처럼 헌신적이고 열성적인가요? 그렇기를 바라지만,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슬프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읽기와 연구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이러한 무관심에는 심각한 결과가 따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지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잘 모르는 신앙을 어떻게 당당하게 제시하고 옹호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대한 헌신 없이 현재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선하고 거룩한 삶을 위한 하나님이 주신 지침서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성경 없이는 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분야에서 더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2 Daniel's model for prayer

Prayer as I often point out makes up an essential part of our Christian lives. It's not an optional extra that can be dispensed with. Prayer is two way communication with God. Just like with any relationship its hard, if not impossible to maintain and build on ties when communication is poor.

We all know that a marriages long term success is built upon good communication. When a husband or wife feel unable to speak honestly and openly it usually signals a serious problem. Experience dealing with other human beings tells us that at times communication can be difficult. The same can be said for prayer. Many sincere Christians struggle at times with prayer. Perhaps even Daniel, who was exemplary in so many ways had seasons in his life when he found prayer challenging. Maybe it was these difficult times that taught him how to pray well. There is then much we can learn from his

example. I have identified three key aspects to his prayer.

A) Daniel's approach.

In verse 3 we read about how Daniel came before the Lord. He set his face, or focused his thoughts entirely upon God. He did not allow outside distractions be they hunger or other things to capture or divert his attention. He even humbled himself by wearing sackcloth and putting ashes over his head. He recognised his proper position and place. He was the wretched creature coming before the holy creator of the universe.

This is the proper approach to take to prayer. God is not our buddy, we are not coming to him as an equal or doing Him a favour by speaking to Him.

B) Properly recognising who God is

In verse 4 we saw Daniel accurately identify who he was speaking with. He was addressing the awesome all powerful God of the universe. He also noted that God is merciful and cares for those who love and obey Him. God also honours His agreements. When we properly recognise who God is we can come before him with humility and awe but also with confidence. God has assured us that He will listen and answer our prayers when they are in line with His will.

C) Properly recognising who we are

In verses 4-6 Daniel correctly understands who we are in relation to God. God is just, holy and righteous. We are the guilty ones. It is us who have not been faithful. We are the ones who have rebelled against God and His laws. We haven't just made a minor error, we have fallen way short of God's perfect standards. We should rightly hang our heads in shame.

All of course would be lost if God had not successfully enacted His plan of salvation.

By our own works we would never come close to what was needed. So we are thankful that God sent His Son the Lord Jesus Christ into the world to save sinners like us. He lived the perfect life so that He could bear our sins upon the cross. Now, those that confess of their sins, repent and place their faith in the person and work of Jesus Christ can have His righteousness imputed to them. If you have not done this then do not delay.

2 다니엘의 기도 모델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양방향 소통입니다. 모든 관계가 그렇듯이 소통이 부족하면 관계를 유지하고 구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결혼 생활이 오랫동안 성공하려면 의사소통이 잘 되어야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솔직하게 털어놓고 말할 수 없을 때는 대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상대해본 경험을 통해 때때로 소통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때때로 기도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 면에서 모범적이었던 다니엘조차도 기도가 어려운 시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그는 기도를 잘하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모범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그의 기도에서 세 가지 핵심 사항을 찾았습니다.

A) 다니엘의 접근 방식

3 절에서 우리는 다니엘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오는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배고픔이든 어떤 외부의 방해 요소가 그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벼운 입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채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인식했습니다. 그는 우주의 거룩한 창조주 앞에 오는 비참한 피조물이었습니다.

이것이 기도할 때 추해야 할 적절한 접근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며, 우리는 그분과 동등한 존재가 아니고, 기도를 통해 말함으로써 그분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